

“사모펀드에 계열사 팔지 말라”... 카카오 노조 반발

VIG 파트너스 '모빌리티' 인수설에 결사 반대 단물만 빼먹고 사회 책임 외면하는 행태 비판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 한 카카오 계열사들의 사모펀드 인수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카카오 노조 크루 유니언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를 산업은행 앞으로 선정 한 이유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인수 관련 루머에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선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크루유니언이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에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한 셈이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VIG 파트너스는 현대 2대 주주인 텍사스퍼시픽그룹을 포함한 주요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약 40% 이상의 지분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예상

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의 57.3%를 보유하고 있다. VIG 파트너스가 지분을 인수해도 경영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VIG파트너스는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까지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노조는 최근 카카오 계열사 인수설에서 대부분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포털 다음-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 매각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사모펀드 매각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카카오 노조는 최근 MBK의 휴플러스 법인 회생 논란 예로 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



전국화합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오지회(크루유니언)가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최근 휴플러스 법인 회생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투자 이익 외에 사회적 책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심지어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자 또는 금융시장에서 조달하

고 있기에 결국 그 부담은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사업화하거나 제3자에 재판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의 주장대로 VIG파트너스가 인수 자금 회수를 위해 나선다면 택시 기사들의 생계 악화 또는 택시비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셀트리온 중남미서 잘나가네 위암 치료제, 브라질 공급 연장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파머징 시장(Pharmerging Market)인 중남미 지역에서 잇달아 입찰 성과를 냈다.

셀트리온은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 브라질에서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주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공급 기간 연장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트라스투주맙 성분 의약품 연방정부 입찰에서 5년 연속 낙찰한 데 이어 최근 다시 한번 공급 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내년 3월까지 허주마를 공급하게 됐다.

해당 입찰은 브라질 트라스투주맙 성분 의약품 시장에서 97%를 차지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선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베바시주맙)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산하 사회보장청(IGSS) 입찰에서 낙찰됐다.



셀트리온의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주마. 셀트리온

과테말라의 경우 입찰 만료 시 신규 입찰 대신 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성과가 중요하다. 베그젤마는 출시 전부터 시장 선점에 성공해 지속적인 공급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코스타리카에서도 허주마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청(CCSS) 입찰에서 추가 공급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까지 연장 공급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트룩시마와 허주마가 각 제품이 출시된 2019년·2021년부터 매년 입찰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90% 넘는 점유율로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후속 제품 출시 및 판매 확대를 통해 중남미 지역 성장세를 이어 갈 계획이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CJ대한통운, 물류업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나서

레인보우로보틱스와 MOU... “물류 현장 적용 혁신기술 구현”



허정우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부설연구소장(오른쪽)과 김정희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장이 16일 'AI 휴머노이드 물류로봇 공동개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CJ대한통운이 국내 물류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물류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6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김정희 CJ대한통운 TES 물류 기술연구소장과 허정우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 부설연구소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물류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AI 기반 로봇 설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혁신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류는 동일한 공정을 반복하는 제조업

과 다르게 매일 수많은 종류의 상품을 다뤄야 해 자동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형 자동화 설비 대신 사람처럼 판단하고 동작하는 휴머노이드가 물류산업에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동형 양팔 로봇-자율이동 로봇(AMR) 등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제공하고 CJ대한통운 물류 환경에 적합한 로봇 플랫폼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CJ대한통운은 실제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적용 가능한 수작업 공정을 발굴하고 테스트를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로봇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플랫폼과 연동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고도화할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특히 CJ대한통운은 물류 작업을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에이전틱 AI는 기존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AI가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의사 결정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다. CJ대한통운은 이 기술을 통해 물류 전 과정의 자율 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AI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수집을 통해 로봇 행동 알고리즘을 완성한 뒤 올해 말부터 현장 실증 프로젝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증을 거쳐 도출한 협력 성과물은 CJ대한통운 주요 물류센터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희 CJ대한통운 TES 물류 기술연구소장은 “협약은 스스로 최적인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는 AI 로봇을 물류 현장에 투입하는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물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